

**‘복합 네트워크 시기’
(Complex Network Moment):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변화**


김치욱
세종연구소

2011년 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1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복합 네트워크 시기’(Complex Network Moment):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변화

김치욱
세종연구소

I. 문제제기

2008 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0 년 유럽 재정위기가 잇달면서 세계경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두 위기는 그 원인은 다를지 모르지만 전후 서구가 주도해온 세계경제질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이러한 서구의 정치경제적 지도력에 대한 회의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패권이 중국과 아시아 및 신흥시장으로 급속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앞으로 미-중 간 패권이전에 따른 국제경제질서의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을 점친다. 경제이념 측면에서 1997 년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해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유용성이 의문시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발생했다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미래 국제경제질서의 향배에 관한 궁금증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2009 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위기 이후 세계의 형성’(Shaping the Post-Crisis World)을 주제로 삼았고, 미국 시사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도 2010 년 ‘세계의 미래’(The World Ahead) 특집호에서 국제정치적 주요 경향과 미국 및 신흥국가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조명했다.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는 정당성 위기 단계를 거쳐 과도기(interregnum)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점치기 어렵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에 관한 논점은 미국과 중국 경제력의 향방, 경제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의 퇴조 여부, 그리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로 요약된다.

본 논문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금융위기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고찰한다. 금융위기가 전후 자유주의 국제주의 2.0(Liberal Internationalism 2.0)에 ‘권위의 위기’(crisis of authority)와 함께 ‘거버넌스의 위기’(crisis of governance)를 동시에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Ikenberry 2009).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거버넌스는 일종의 ‘복합 네트워크 시기’(Complex Network Moment)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복합네트워크는 전통적 국제정치 행위자인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이외에,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정부네트워크(Inter-governmental Networks: IGNs), 초정부네트워크(Trans-governmental Networks: TGNs), 그리고 초국가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s: TNNs) 등이 세계경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거버넌스 양식을 말한다.



미국과 서구는 이라크전쟁과 금융위기를 통해 각각 군사적, 경제적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찾아온 미국의 단극시기(unipolar moment)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유력한 대안으로 G2(미국·중국), 3극(미국·EU·중국), 다극체제 등이 거론되었다. 동시에 정보화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극성(polarity)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퇴색되었다. 대신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는 다원적인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실 세계질서의 변환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소위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도래는 1 차대전 후 우드로 윌슨, 2 차대전 후 윈스턴 처칠, 냉전 종식 후 조지 부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고든 브라운과 버락 오바마 등에 의해 선포되었다. 하지만, 20 세기의 신세계질서는 서구의 승리를 기념한 것이라면, 21 세기의 신세계질서는 서구의 패배를 자인하는 성격이 짙다. 이러한 변환의 동력은 다름 아닌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 등 소위 ‘나머지의 부상’(Rise of the Rest)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경제질서의 물질적 기반의 재편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국제경제협력의 최고 포럼으로 규정함으로써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다. 특히 G20 은 국제경제의 새로운 네트워크적인 거버넌스 모드라는 점에서 국가 간 능력배분과 경쟁 구도의 변화에 더해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세계경제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 논문의 복합네트워크는 국가 행위자의 역할 확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합적 상호의존론(complex interdependence)이나 초정부주의(transgovernmentalism)와 차이가 있다. 복합적 상호의존론(Keohane 1972; 1977)은 국제정치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상대적 위상 강화에 주목한다. 초정부주의(Slaughter 2004)는 국가행위자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현실주의적인 상위정치보다는 하위정치 행위자로서 다양한 정부기관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계정치의 중심이 ‘정부에서 거버넌스’(government to governance)로 이동하면서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 등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차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Underhill 2008)². 슬로터(Slaughter 2004)는 ‘신세계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초정부 네트워크’라면서, 법원, 규제기관, 공정거래기구 등 하위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등장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들 네트워크는 위계적이고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되었던 국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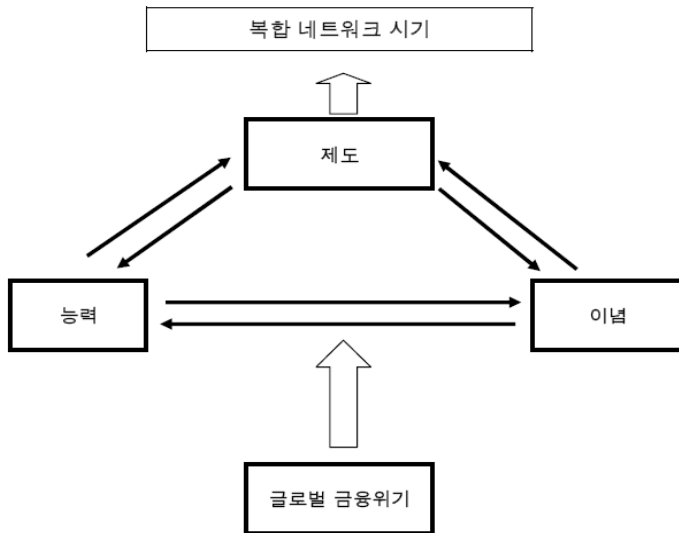
그렇지만 위와 같은 초정부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복귀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Altman 2009). 단적인 예로 국제경제협력의 최고 포럼으로 지정된 G20 정상회의는 전형적인 국가 중심적인 제도다(Cooper 2010, 744). [그림 3]에 예시된 기타 3G (Global Governance Group), C10 (Committee of Ten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and Central Bank Governors), G24 (Intergovernmental Group of Twenty-Four o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nd Development),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BRICs) 등도 모두 정부간 네트워크로서 최근 세계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통화스왑 등 양자주의적인 방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자적인 틀에 초점을 맞춘 복합적 다자주의(complex multilateralism)와도 차별성을 띤다.³

아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먼저,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간주되는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가 금융위기로 인해 어떠한 도전에 직면했는지 살펴본다. 이어 3 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아키텍처로서 복합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한다. 4 장은 G20 을 중심으로 정부간기구(IGOs), 정부네트워크(IGNs), 초정부네트워크(TGNs) 등이 하나의 거버넌스 망(網)을



이루는 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으로 5 장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화가 국제정치학과 한국 외교에 주는 이론적 정책적 도전을 논한다.

[그림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II. 세계경제질서의 동학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세계질서를 포함한 국제정치 일반의 변화를 설명하는 동인으로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요소를 꼽는다. 세계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국제정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이에 일정한 패턴을 부여하는 장치(governing arrangement)로 정의할 수 있다(Ikenberry 2001, 23). 그 장치로서 현실주의에서는 능력분포, 자유주의는 국제제도,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아이디어와 이념이 강조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하는 틀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세계질서의 안정성과 변화는 이 세 측면, 즉 물질적 능력, 아이디어 및 제도 간 상호 부합 여부에 의존한다(Cox 1996, 103). 특히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의 변화는 기존 사회체제와 권력 재분배 간의 불일치에서 유래한다. 기존의 능력배분 상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게임의 룰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새로운 분포를 반영하지 않는 글로벌 제도는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Gilpin 1981; 2001; Drezner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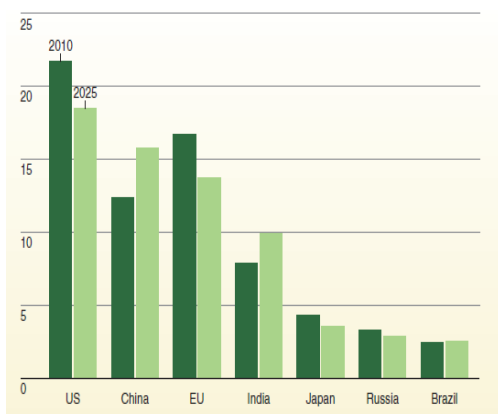
전후 국제경제질서는 1970년대 초까지 물질적, 제도적, 이념적 차원 모두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었다. 물질적 능력 면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944년 <브레턴우즈회의> (Bretton Woods Conference)에 뿌리를 둔 관세무역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 일명 브레턴우즈제도(Bretton Woods Institutions: BWIs)로 알려진 공식 정부간기구(IGOs)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념적으로는 국제적 자유주의와 국내적 자율성이 병존하는 제한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지배했다. 즉, 자유무역은 공산품 관세 인하에 국한되었



고, 국가 간 자본이동은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국내적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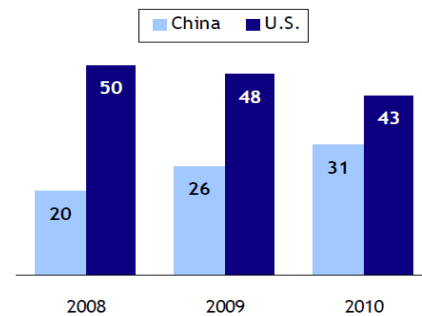
그런데 전후 세계경제질서가 변화의 도전에 처음 직면한 것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독일, 일본 경제의 부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상대적인 쇠퇴를 경험하면서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은 독일과 일본의 부상으로 잠식당했고,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의 누적으로 브레턴우즈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선진국들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서둘렀고, 국가 간 자본이동을 본격적으로 자유화하기 시작했다. 국제무역질서에서 지역주의가 대두하고, 국제통화로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역할이 증대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공식 정부간기구인 브레턴우즈제도에 더해, 선진 7개국 협의체(Group of Seven: G7)라는 비공식 정부간 네트워크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1970년대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전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의 우월한 능력, 브레턴우즈 제도,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을 축으로 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지속되었다⁴.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력의 재편



(a) 글로벌 파워 2025⁵

출처: Pew Global Attitude Survey 2010



Median % naming China and the U.S. as the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across the 20 nations surveyed in 2008, 2009, and 2010.

(b) 경제 리더십 인식 변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후 세계경제질서의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균형 상태에 충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균열이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글로벌 파워는 물론, 경제모델 및 정치적 이념의 원천으로서 미국의 압도적 지배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리더십이 중국이나 유럽으로 전면적으로 이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는 여전히 너무 가난하고 내부지향적이다. 유럽도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미국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반면 미국은 디폴트파워(Default Power)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했다(Kaletsky 2009; Joffe 2009).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 및 금융패권이 약화되고, 경제이념 및 발전모델로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가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대두하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아키텍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Nanto 2009; Altman 2009).

첫째,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서구가 지배해온 세계경제질서 내 물질적 능력의 재편을 가속화함으로써 미국과 서구의 국제적 리더십에 제약을 가했다.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자산(toxic



assets)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으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꺼안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역력이 없어 1930년대 이래 찾아볼 수 없었던 ‘강요된 자제’(forced restraint)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Altman 2009). 결국 금융불안과 재정적 부담의 가중, 그리고 국내문제 우선 정책은 미국과 서유럽이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수출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융부문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했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면에서 쌍둥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듯이 2025년이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파워 격차가 2-3% 이내로 좁혀질 것이라는 예측이다(a).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급변했다(b). 2008-2010년 사이 세계경제의 선두국가로서 미국을 꼽은 비율은 7% 감소한 반면, 중국을 지목한 비율은 11%나 증가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공고화되고 있는 셈이다⁶.

둘째, 금융위기가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세계경제의 지배적 이념으로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⁷. 영국과 미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은 주저앉았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행과 부패 사례가 드러났다. 더구나 경제안정을 명분으로 미국과 유럽 정부는 근대 자본주의의 신조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국내 금융산업을 국유화하기까지 했다.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은 작아지는 시대적 전환점에 도달했다(Altman 2009).

반면,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 기반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개도국에게 하나의 대안적 발전모델로서 관심을 끌었다(Halper 2010; Bremmer 2010). 중국은 1978년 경제적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30년 동안 연평균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1인당 소득도 12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혁신에 기초한 발전, 1인당 GDP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평등성의 수준으로 측정된 경제적 성과,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여타 국가들의 자결(self-determination) 등을 원칙으로 한다. 자결 원칙은 워싱턴 컨센서스 거부, 자율적 세계화, 무기가 아닌 모범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비대칭적 능력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Ramo 2004; Kennedy 2010). 최근에는 중국의 발전모델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중국모델’이 자주 사용된다. 이 때 ‘중국적 사회주의’ 또는 ‘중국적 자본주의’ 등 중국 고유의 특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국가의 경제개입을 대폭 인정한다는 점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세계경제의 지배적 이념으로서 중국모델이 영미모델을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약점이 드러나고 정부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당초 개발모델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닌 자신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모델과 베이징 컨센서스가 자유주의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사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신고전파 경제학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랐다(Yao 2010). 중국의 경제정책과 원래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교해보면 총 10개 중 8개가 정책처방에서 서로 일치한다. 재정정책, 경쟁 환율제, 무역자유화,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등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준수했고, 공공재 보조금 감축, 조세기반 확충, 시장진입 장벽 완화, 재산권 강화 등 4개 부문에서도 수렴되었다. 이자율 자유화와 민영화 부문에서 가장 소극적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해 국영기업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는 새로운 경제이념으로서 냉전기 때와 같은 남북 간의 첨예한 이념대결을 조장할 것 같지는 않다(Kennedy 2010). 기존 세계경제거버넌스의 이념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까지 해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Germain 2009). 그렇다고 베이징 컨센서스가 중국 소프트파워의 상징으로서 장차 워싱턴 컨센서스의 규범적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Kurlantzick 2007).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개혁 논쟁을 재점화했다. 사실, 1970년대 초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래 반복된 경제위기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예외 없이 ‘신브레턴우즈’(new Bretton Woods)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2년 남미 부채위기, 1987년 주식시장 붕괴,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유예선언 등 크고 작은 국제 금융위기 때마다 기존 국제경제 거버넌스의 개혁 요구가 쏟아졌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11월 제1차 <G20 정상회의> (G20 Summit)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신브레턴우즈체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또 한 차례의 브레턴우즈 시기(Bretton Woods moment)를 맞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물론 여기서 브레턴우즈 시기란 1944년 브레턴우즈회의에서처럼 국제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디자인할 기회라는 점을 뜻한다.

근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거버넌스는 양자적 비공식 네트워크와 다자적 공식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930년대 이전 시기 국제경제체제는 비공식적인 규칙과 일종의 네트워크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었다(Helleiner 2010; Frieden 2006). 그러다 2차대전 막바지에 열린 브레턴우즈회의에 참여한 44개국은 전후 국제경제의 관리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공식 국제기구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그 결과 세계경제 거버넌스는 20세기 초까지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서 공식적 기구들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거버넌스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기가 되었다. 아직까지 신브레턴우즈체제라는 거대한 구호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체로 기존 거버넌스 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Financial Times December/28/2009).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G20 정상회의> 등 정부간 네트워크가 부상함에 따라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중층성과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요약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질서의 물질적 기초 면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론과 유지론, 이념적 측면에서 영미식 자유주의모델과 중국식 국가주의모델,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 브레턴우즈체제와 비공식 네트워크 간의 병존과 때로는 경쟁을 심화시켰다. 그만큼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방식과 참여자에 있어서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금융위기로 야기된 국제경제질서의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균형의 변화가 복합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III. ‘복합 네트워크 시기’

이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거버넌스는 점차 ‘복합 네트워크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여기서 복잡성(complexity)은 거버넌스에 간여하는 행위자가 다양화되고 의사결정이 탈집중화됨을 의



미한다.⁸ 또 네트워크는 행위자로서 네트워크(networked actor)와 거버넌스 방식으로서 네트워크(networked governance)를 동시에 포함한다(Kahler 2009). 따라서 복합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기존의 국가, 국제기구 등 위계적 행위자 이외에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거버넌스에 새롭게 편입되고, 이들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 역시 일종의 그물망(web)을 이루면서 세계경제질서의 운영에 중층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합네트워크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자 및 거버넌스 양식으로서 네트워크의 부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행위자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첫째, 국가행위자 중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능력과 발언권은 신장되고 미국과 서구의 입지는 위축됨으로써 국제경제질서의 다극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붕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시장은 미국의 소비수준을 지탱하는 자본공급처 역할을 맡았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국보다 나은 실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했다. 이와 같은 신흥시장의 부상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즉각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G20 이 세계경제협력의 중심으로서 G8 을 대신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쿼터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비중이 증가했다.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지위에 대한 도전도 거세졌다. 저우샤오찬(Zhou Xiaochan) 중국 인민은행장은 2009년 3월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통화의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의 용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위기가 터지자마자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과 총 1,181억 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중화경제권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폐의 국제화를 시도했다(Xinbo 2010).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서구의 지정학적 후퇴와 함께, 그동안 국제경제 거버넌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흥국가들의 약진을 초래했다(Altman 2009). 이로써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의 숫자와 이질성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경제적 동류국가(link-minded countries)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신흥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협상비용과 마찰음이 더욱 커졌다.

또한 국제경제질서는 새로운 권력중심(power center)으로서 거대 신흥시장 외에 다양한 초국가 행위자들이 권력브로커(power brokers)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다극화되었다. 권력브로커는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국제투자펀드 등 초국가 행위자들을 말하며, 이들은 국가 및 국제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Subacchi 2008).

둘째, 행위자 차원의 또 다른 변화는 거버넌스 참여자로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부상이다. 국가들은 본래 주권영역에 속해 있었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다양한 초국가 행위자에게 위임한다. 이 위임은 보편적 혹은 지역적 정부간기구(IGOs)에 대해 수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나, 의사결정, 이행 및 집행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위임에서 오는 문제점은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들은 정부네트워크(IGNs)와 초정부네트워크(TGNs) 등 네트워크에 대한 수평적 위임을 채택하게 된다(Eberlein and Newman 2008, 26). 특히 초정부네트워크(TGNs)의 경우 국가 간 상호작용이 증대하는 가운데 관료제도의 기능적 분화가 비슷해지고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Eilstrup-Sangiovanni 2009).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에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행위자는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 정상회의> 를 들 수 있다. G20 은 하나의 네트워크다.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상설적인 본부나 사무국도 없다. 단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관해 공동의 입장을 논의하고 형성하는 포럼이다. G20 은 처음부터 국제적 의사결정기구나 국제 금융 및 경제 관리 영역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단순히 정상들이 모여 의견, 관점,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세계경제발전의 필요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여겨졌다. 여전히 공식적인 동맹이나 조직이 되거나, 브레턴우즈제도와 같이 집행기관을 두는 제도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일상적인 외교활동이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 간 협의와 관리 과정과는 다르며 이들과 별도로 진행된다.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 회의 준비는 외무 또는 재무장관 회의나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정상이 지명한 개인적인 대리인에 의해 진행된다. 2-3 일 동안의 정상회의 이외에, 각료, 관료, 전문가 수준의 복합적인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연중 회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G20 은 공무원, 정부 각료, 국제기구, 심지어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복합네트워크 시기의 세 번째 특징은 거버넌스 모드로서 네트워크의 확산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는 글로벌 및 지역적 거버넌스의 차세대 방식으로, 또 국제제도의 합리적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된다(Kahler 2009).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식 다자주의의 번거로움과 국제기구의 비효율성을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네트워크는 집중화 없는 역량 확대라는 소위 세계화 역설(globalization paradox)의 해법인 셈이다. 네트워크는 신속성, 유연성, 포용성, 침투성 등의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Slaughter 2004, 167).

그런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와 정부간기구(IGOs)를 배제한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Kahler 2009). 다시 말해 전통적인 국제정치 행위자들인 국가나 정부간기구(IGOs)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전통적인 행위자간의 관계는 경쟁적일 수도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네트워크는 국가들과 국제적 영향력을 다투게 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간기구(IGOs)와 기타 위계적인 국제협력체에 의해 독점되었던 영역에서 유력한 대안적인 제도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국가들이 특정 정부간기구(IGOs)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초정부네트워크(TGNs)는 위임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IGOs 나 기타 공식적인 국제협력체를 강화시킬 수 있다(Raustiala 2002).

2008 년 금융위기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양자협정에 의한 네트워크 금융거버넌스의 발전을 촉진했다(Chin 2010). 아시아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 금융거버넌스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는 2005 년 아세안+3(ASEAN Plus Threes: APT)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래 2009 년 5 월 다자화에 합의되었고, 역내 16 개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2008 년 10 월 미국과 300 억 달러, 중국과 263 억 달러, 일본과 200 억 달러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 7 개국과 양자스왑을 체결했다. 이는 위기 시 역내 국가들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안전망으로서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과 같은 지역 정부간기구(IGOs)가 아닌 양자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남미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은 2008 년 10 월 역내 최대 교역상대국인 아르헨티나와 쌍무적인 자국통화 지불 시스템에 서명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Board: FRB)와 300 억 달러 규모의 임시 통화스왑을 체결한 데 이어, 2009 년에는 중국과도 협정을 체결했다. 아르헨티나도 2009 년 3 월 중국과 100 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맺었다. 이와 같이 유동성 위기 시 최종대부자 역할을 할 만한 지역금융기구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은 양자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했고 그 결과 지역금융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수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연결망도 촘촘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금융위기의 복합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번 위기는 비단 금융뿐 아니라, 무역, 식량, 에너지, 환경 등의 영역에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무역의 경우, 더 이상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만의 문제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Mattoo and Subramanian 2009). 대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G20,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국제협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아래 4 장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G20 은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허브로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복합네트워크는 국가, 정부간기구(IGOs) 등 위계적 행위자, 그리고 정부네트워크(IGNs), 초정부네트워크(TGNs), 초국가 네트워크(TNNs) 등 수평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상호 연결된 채 글로벌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시스템이다. 아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허브로 떠오른 G20 을 중심으로 복합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IV. 세계경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G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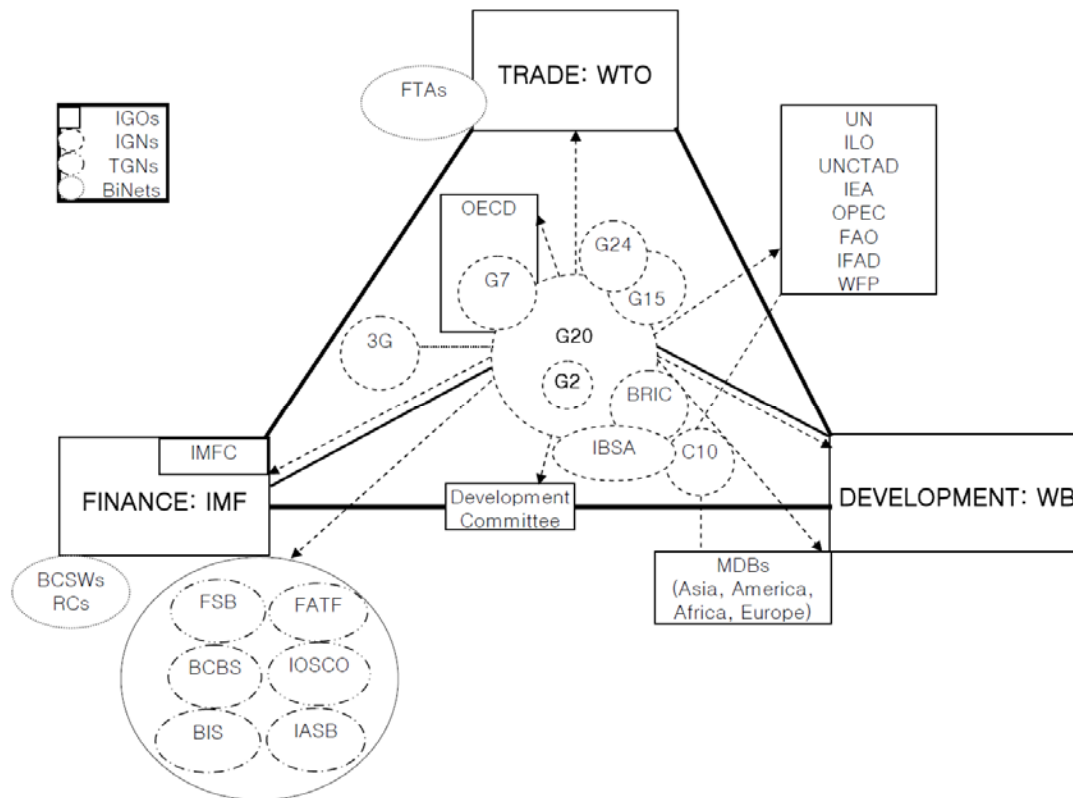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허브, 세계경제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부상했다는 점이다(Cooper 2010; Wolf 2009). G20 은 세계 GDP 의 90%, 세계무역의 80%, 세계인구의 3 분의 2 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단일패권이나 선진 7 개국(G7)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선진국과 신흥국가로 구성된 최고포럼으로서 G20 의 지위는 이러한 국제체제 내 능력의 배분상태를 반영한 결과인 셈이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가가 공존하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존 거버넌스 체제의 대표성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다.

G20의 경제적 이념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차 워싱턴회의에서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공식 정상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G20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나 자유시장체제의 개편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 하지만 정상들은 국제경제체제 개혁은 오직 자유시장 원칙, 즉 법치주의, 재산권 존중,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경쟁 시장, 효율·효과적으로 규제된 금융시장에 기반했을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White House 08/11/15). 실제로 G20의 아젠다는 결코 급진적이지 않았다. 국제금융 규제에 관한 G20의 조치는 브레튼 우즈회의와 달리 자본의 초국경 이동을 제약하려 하기보다는 기존 국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G20은 새로운 국제적 능력배분과 자유주의 이념의 구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G20은 어떤 점에서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속성을 강화하고 있는가? G20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G20 그 자체의 발전, G20의 다른 행위자에 대한 기능적 포섭의 강화, G20에 의한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창설, 그리고 G20을 모방한 네트워크 행위자의 확산 등이다



[그림 3] 세계경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⁹



먼저, G20은 그 자체로 일종의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다. G20은 느슨한 형태의 정부간 포럼으로서 비공식적이고 소통 중심적이며, 최고위급 수준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접촉과 모임의 성격을 띤다. 정상회의 준비는 통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하기보다는 회원국 정상의 대리인(shopper) 주도로 이뤄진다. 정상회담 외에도 장관급 고위관료, 국제기구 관리, 민간 전문가,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가 동시에 운영된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G20 프로세스는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국가들이 제도화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G20을 세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은 제도 변화의 점진주의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이래 지배적 국제경제 거버넌스 방식이었던 공식적인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보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Helleiner 2010, 632). 사실 유엔(United Nations: UN)은 G20 정상회의 개최 장소를 유엔 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G20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후 G20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발금융 정상회의(U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유엔 금융위기 정상회의로 바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유엔이 주관하는 정상회의만이 보편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도국의 복지, 기후변화 및 식량위기 등 유엔 개발목표에 초점을 맞춘 '포용적 다자주의'(inclusive multilateralism)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엔정상회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발의제는 위기관리라는 G20의 의제에 밀리고 말았다. 유엔은 오히려 G20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유엔은 점차 G20에 비판적인 노선을 취했고, 유엔총회는 G20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기지로 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9년 소위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발족과 <유엔글로벌경제위기회의> (UN Conference on the Global Economic Crisis)의 개최로 가시화



되었다. 스티글리츠위원회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기구로서 유엔의 포괄적 멤버십이 반영되는 'G192'를 제안했다. 유엔 글로벌경제이사회(Global Economic Council)를 설립하여 국제 경제 및 금융 개혁 아젠다를 설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등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아젠다는 글로벌 준비통화와 국제 부채조정법원 신설 등으로 1944년 브레턴우즈회의를 연상시킬 만큼의 획기적인 내용이었다(UN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유엔이 아닌 G20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신흥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수정주의(revisionist)보다는 개혁주의(reformist) 성향을 갖고 있으며, 세계경제 거버넌스 내부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국제체제 내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순화시킬 수 있다는 선진국의 판단 때문이었다(Alexandroff and Cooper 2010). 특히 미국은 프랑스가 선호했던 G13이나 G14 대신 G20을 택했다. 미국에게 G20은 우방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었는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우방인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G20은 <기후변화 주요국회의> (Major Economies Meeting: MEM)에 참여하는 주요 온실가스배출국을 포함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아젠다에 부합했다.

다른 한편, G20이라는 네트워크는 공식 정부간기구의 비효율성과 실패의 누적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Martinez-Diaz and Woods 2009). 예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보여준 실책은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촉진했다. 또 거래비용이 큰 새로운 공식 제도의 창출보다는 기존 제도의 재활용이 가능한 사전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G7,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표준기구 등 정부간 또는 초정부간 네트워크가 이미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들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G20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G20은 정부간기구(IGOs), 정부네트워크(IGNs), 초정부네트워크(TGNs) 등 다른 조직 및 네트워크 행위자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보다 큰 틀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림 3]에서 점선 화살표는 2008년 워싱턴회의부터 2010년 서울회의까지 다섯 차례의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G20이 어떤 거버넌스 행위자(IGOs, IGNs, TGNs)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첫째, G20은 정부간 포럼으로서 특정 경제이슈에 대해 정보와 의견교환이라는 숙의(deliberation)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해당 이슈를 관장해왔던 행위자의 임무와 역할에 자연스럽게 간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피츠버그 회의는 앞서 열린 <로마사회정상회의> (Rome Social Summit)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초국가 네트워크를 거버넌스에 끌어들었다. 숙의기능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등 기술적인 지원을 다른 행위자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서울정상회의 선언문은 구조개혁과 금융개혁에 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및 다른 국제기구의 전문지식에 의존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더 나아가 유엔과 지역기구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 노동조합, 학계 등과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G20은 여러 업무를 정부간기구(IGOs) 등에 아웃소싱(outsourcing)한다. 이는 비공식 포럼인 G20이 별도의 집행부서를 공식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기능의 아웃소싱은 정상회의 성명서 상에 다른 정부간기구(IGOs)에 대한 요구·요청 촉구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예로 G20 런던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에게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후속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에게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공동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진행사항을 모니터 하도록 했고, 유엔에게는 다른 글로벌 제도와 협력하여 금융위기가 최빈국에 미친 영향을 모니터 할 장치를 마련토록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다른 관련 기구와 함께 노동시장 정책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받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관리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등을 대상으로 금융 규제와 감독에 관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제 석유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국제석유공동통계(Joint Oil Data Initiative: JODI)를 지지하고 국제에너지포럼(IEF),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에 국제석유공동통계(JODI) 데이터베이스의 질,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를 제안하는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했다.

셋째, 정치적·재정적 지원과 지지를 통해 기존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 행위자의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함으로써 기능적 네트워킹이 이뤄진다. 이 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자주의의 부흥을 가져왔다(Woods 2010). 2008 년 금융위기 이전만하더라도 국제경제제도(BWIs)의 중요성은 쇠락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0 년대 후반 아시아금융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그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팽배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사 비리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었다. 다자 무역협상인 WTO 도하라운드도 거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기구로 등장한 G20 은 국제경제제도(BWIs)에 임무와 지원을 제공하고 활성화했다. 2009 년 4 월 G20 런던정상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7,500 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 년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에게 3,000 억 달러를 긴급 지원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G20 이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를 직간접적으로 창설(creation)하는 것이다. 2009 년 런던정상회의는 1999 년 출범이래 글로벌 금융거버넌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FSF 를 FSB 로 확대·개편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브레턴우즈제도의 ‘제 4 의 기둥’(fourth pillar)이라고 묘사했지만(U.S Treasury 09/09/24),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성격은 공식 정부간기구(IGOs)라기보다는 정부네트워크(IGNs)에 가깝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매우 작은 사무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권력도 거의 없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일종의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로서 비공식 협력, 정보 공유, 개별 국가당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는 국제 연성법(soft law) 개발을 촉진한다. 한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국가행위자의 네트워크 형성이 확대되기도 한다. <런던일자리회의> (London Jobs Conference)는 G20 런던정상회의의 준비과정의 일부로 조직되었고, 2009 년 3 월 24 일 G20 의 노동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Chair’s Report 2009). G20 서울회의에서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 (Business Summit)이 정례화되었다.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은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 G20 국가까지 망라된 글로벌기업의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들이 모인 포럼으로, 기업가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또한, G20 의 결정으로 다른 네트워크 행위자의 멤버십과 임무가 변경되기도 한다. 2008 년 <G20 워싱턴 회의>는 2009 년 3 월말까지 금융안정포럼(FSF)을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다른 주요 표준설정 기구들도 신속히 멤버십 상황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거대 신흥국가들이 금융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속속 편입되었다. 2009 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회원국 수를 14 개에서 16 개로 늘려 지역적 다양성을 기했으며,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기술위원회는 중국, 브라질, 인도를 신입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러시아 등이 새로이 가입했다.

마지막 메커니즘은 G20 이 다른 정부간 네트워크의 확산(diffusion)을 통해 일종의 제도적 수렴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3G는 2009년 다보스포럼에서 조지 여(George Yeo)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주도로 출범했다.¹⁰ 3G는 일차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허브로 부상한 G20의 제도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탄생했다. G20은 그 결정과 조치가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회원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식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3G는 G20의 회원국-비회원국 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매체로 고안되었다(Vanu Gopala Menon 10/06/02). 궁극적으로 3G의 목적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서 G20의 정당성 제고에 기여하고, G20과 유엔을 연결해 주며, G20 내에 비회원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George 10/03/05). 이들은 보편성과 정당성을 갖춘 유일한 조직은 유엔이기 때문에, G20은 ① 유엔과 광범위하고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② 유엔사무총장과 그 세르파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③ 비 G20 국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슈중심 회의체'(variable geometry)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UN General Assembly 10/03/11). 요컨대, 3G는 G20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규모 유엔회원국들이 G20에 대한 간여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C10은 아프리카 1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체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 아젠다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남아공 이니셔티브(South African Initiative) 일환으로 2009년 1월 공식 발족했다.¹¹ C10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국제금융제도(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참여를 강화하며, G20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의 간여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다. 실제로 C10은 2009년 4월로 예정된 <G20 런던회의>를 앞두고 G20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공동 입장과 건의사항을 공식 채택한데 이어(C10 09/03/21), 후속 회담에서도 아프리카의 견해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C10 09/07/14; 10/02/21; 10/10/06). C10은 기본적으로 G20 회원국인 남아공을 매개로 G20에서 개발지원, 빈곤축소, 금융개혁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네트워크인 셈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의 제도적 발전에 맞물려 탄생한 또 다른 정부간 네트워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이 참여하는 <브릭 정상회의> (BRIC Summit)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2001년 '브릭'(BRIC)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만해도 이것이 하나의 정부간 협력체로 발전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2009년 3월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브릭 정상회의>는 국제경제제도 내에서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대표성이 증대하고 의사결정이 민주화되는 신글로벌경제질서의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또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협력·조정·대화의 장으로서 G20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BRIC Summit 09/06/16; 10/04/15). 뿐만 아니라, 브릭(BRIC)은 에너지협력, UN 개혁, 테러리즘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 점에서 <브릭 정상회의>는 G20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포럼 내에서 공동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글로벌 거버넌스에 반영하기 위한 하위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G20은 그 자체로 일종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다른 거버넌스 행위자에 대한 기능적 네트워킹,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창설, 그리고 네트워크로의 제도적 수렴 촉진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는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 이외에, 정부간기구(IGOs), 정부네트워크(IGNs), 초정부네트워크(TGNs), 그리고 초국가 네트워크(TNNs)이 중층적으로 참여하는 복합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 될 전망이다.



V. 결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구가 지배해왔던 전후 세계경제질서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구의 정치경제적 지도력에 대한 회의론은 미-중 간 패권이전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국제경제질서의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한다.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는 정당성 위기와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잡아내기 어렵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질서에 미칠 파급효과는 미국과 중국 경제력의 향배, 경제 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의 퇴조 여부, 그리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할 경제 거버넌스는 일종의 ‘복합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네트워크는 전통적 국제정치 행위자인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이외에, 정부간기구, 정부네트워크, 초정부네트워크, 그리고 초국가네트워크 등이 세계경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거버넌스 양식을 말한다. 특별히 G20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위기 이후 국가 간 능력배분과 경쟁 구도의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복합성을 강화했다.

사실 세계경제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이미 상호의존론과 초정부주의에서 인식되었다. 하지만 복합네트워크는 국가 행위자의 역할 확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 행위자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국가 중심적인 포럼인 G20 정상회의, 3G, C10, 브릭(BRIC) 등을 탄생시켰고,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공식 국제기구의 부활을 촉진했다. 뿐만 아니라, 복합거버넌스는 쌍무적 통화스왑과 같은 양자주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자적인 틀을 강조하는 복합다자주의와도 다르다.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는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현실주의는 물질적 능력의 분포, 자유주의는 국제제도,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아이디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때 세계질서의 안정성은 물질적 능력, 아이디어 및 제도 간 부합 여부에 달려있다. 전후 국제경제질서는, 1970년대 초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국의 지도력, 브레턴우즈제도,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을 축으로 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3각 균형상태에 큰 충격을 가했고, 물질적 능력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론과 유지론, 경제이념으로서 영미식 자유주의모델과 중국식 국가주의모델,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식 브레턴우즈제도와 비공식 네트워크 간의 병존과 경쟁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방식과 참여자에 있어서 다양성과 복합성이 커지게 되어 ‘복합 네트워크 시기’의 도래를 재촉했다. 이 시기에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가들이 주요 행위자로 편입되어 거버넌스 참여자 간 이질성을 증가시켰고, G20 정상회의와 같은 네트워크 행위자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양자 통화스왑처럼 거버넌스 모드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복합네트워크는 국가로 대표되는 위계적 조직과 수평적 네트워크들이 함께 글로벌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체제다.

특히 최상위 세계경제협력포럼으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러한 복합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다. G20은 그 자체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G20 프로세스는 그 안에 정상회의, 재무장관 차관회의,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회의, 전문가 그룹, 부문별 관료회의, 비즈니스서밋 등을 포괄하는 중층적 네트워크다. 뿐만 아니라, G20은 숙의기능, 아웃소싱, 역량강화 등 일련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를 거버넌스에 엮어 들인다. 또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예처럼 네트워크 행위자를



직접 창설하거나, 3G, C10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도적 모방을 자극함으로써 거버넌스로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다른 대안적인 질서의 모색을 고무하고 있다. 어떤 이는 국제경제제도에 대한 미국의 명령과 통제가 완화되며, UN 등 보다 광범위한 멤버십을 갖춘 국제제도의 역할이 증대되고, 미국 중심의 위계적인 질서가 아닌 집단적 리더십이 국제공공재를 공급하는 질서,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 3.0 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Ikenberry 2009).

하지만, 복합네트워크 시기의 세계경제 거버넌스는 아직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2.5 에 가깝다. 개별국가 단위 면에서, 미국의 권리와 특권이 경제와 정치적 영역에서는 일정 정도 신흥국가에게 양보되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유주의 질서의 규칙과 제도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러시아는 2008 년 중반까지만 해도 부활한 거인(resurgent giant)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서비스 센터’ 인도는 미래의 세계질서에 관한 독자적인 비전과 역할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부상에 유용하다고 판명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쇠락하는 유럽은 브레턴우즈제도에 성문화된 자신의 영향력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합네트워크는 국가와 공식 국제기구 등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과, 정부네트워크(IGNs), 초정부네트워크(TGNs), 초국가 네트워크(TNNs) 등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힘은 연결성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리더십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결을 만들 때 행사될 수 있다. 위계적인 질서하의 지도력이 모든 일을 직접 떠맡는 것이라면, 네트워크 질서하의 지도력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양한 연합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적절한 대화 파트너를 선정하고, 공적·사적 행위자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네트워크 시기 한국의 경제외교는 전통적인 국가 간 양자외교뿐 아니라, 공식 국제기구, 비공식 정부네트워크, 시민사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와 같은 초국가 행위자를 관통하고 포괄하는 네트워크 전략에 기반해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주(註) _____

¹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는 정당성 위기(legitimacy crisis), 과도기(interregnum), 구성기(constitution), 이행기(implementation) 등의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Helleiner 2010).

²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의 공존을 강조하는 입장은 Cohen(2008), Subacchi(2008) 참조.

³ 복합적 다자주의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는 O'Brien et.al(2000), Subacchi(2008) 참조.

⁴ 1990 년대의 특기할만한 국제경제적 변화는 동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부상, 유로화의 등장,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개도국의 시장지향적 개혁 등이다.

⁵ 여기서 글로벌 파워는 GDP, 군사비, 인구, 기술수준을 지표로 산출되었다(NIC 2010, 11)



⁶ 반면,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도 만만찮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인프라 투자와 농촌기업 개혁 등 기본적으로 농업적인 현상이다(Bardhan 2010).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아직 세계화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서구가 짜 놓은 룰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 세계질서 안에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다(Steinfeld 2010). 또 중국은 내륙과 해안지역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1 인당 소득이 3 천~8 천 달러에 이를 때 성장이 멈추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소위 ‘중간소득의 덩’ (middle-income trap)에 빠져있다(Yao 2010).

⁷ 워싱턴 컨센서스와 신자유주의를 동일시하는 견해는 Stiglitz (2002), Serra and Stiglitz (2008), Gilpin(2001), Gore(2001) 등 참조.

⁸ 단순계(simple system)에 비해 복잡계(complex system)는 행위자의 다양성(diversity), 의사결정의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개방성, 역동성, 피드백 정도 등이 훨씬 크다(Harrison 2006, 3).

⁹ 여기 정부간기구(IGOs), 정부네트워크(IGNs), 초정부네트워크(TGNs)는 워싱턴회의에서 서울회의까지 다섯 차례의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명시되었다(G20 Seoul Summit 10/11/11-12; G20 Toronto Summit 10/06/26-27; G20 Pittsburgh Summit 09/09/24-25; G20 London Summit 09/04/02; G20 Washington Summit 08/11/15). [그림 3]에 나타난 약어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MFC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BCSWs (bilateral currency swaps).

¹⁰ 3G 의 회원국은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브루나이, 칠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파나마,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산마리노, 세네갈,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등 24 개국이다.

¹¹ C10 은 알제리, 보츠와나, 카메룬,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탄자니아, 서아프리카국가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West African States: CBWAS), 중앙아프리카중앙은행(Central Bank of Central African States: CBCAS)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문헌

- Alexandroff, Alan and Andrew F. Cooper. 2010. *Rising States, Rising Institutions: The Challenge of Global Govern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Alter, Karen J. and Sophie Meunier. 2009.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egime Complexity." *Perspectives on Politics* 7, 1: 13-24.
- Altman, Roger C. 2009. "The Great Crash, 2008: A Geopolitical Setback for the West." *Foreign Affairs* 88, 1: 1-14.
- Bardhan, Pranab. 2010. *Awakening Giants, Feet of Clay: Assessing the Economic Rise of China and In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ses, Daniel. 2008. "World Faces New Bretton Woods Moment: Stiglitz." *Reuters* November 6.
- BRIC Summit. "Joint Statement of the BRIC Countries' Leaders." Ekaterinburg, Russia, June 16, 2009; "Joint Statement of BRIC -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Grouping II Summit of Heads of State/Government." Brasilia, Brazil, April 15, 2010.
- Chin, Gregory T. 2010. "Remaking the Architecture: The Emerging Powers, Self-insuring and Regional Insulation." *International Affairs* 86, 3: 693-715.
- Clark, Ian. 2009. "Bringing Hegemony Back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85, 1: 23-36.
- Cohen, Benjamin J. 2008.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Diffusion and Ambiguity." *International Affairs* 84, 3: 455-470.
- Committee of Ten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and Central Bank Governors. "Communique of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of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and Planning and Governors of Central Banks." Abuja, Nigeria, July 14, 2009; "Communique of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of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and Planning and Governors of Central Banks (Committee of Ten)." Cape Town, South Africa, February 21, 2010; "Communique of the Committee of Ten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and Central Bank Governors." Washington, DC. October 6, 2010.
- Cooper, Andrew F. 2010. "The G20 as an Improvised Crisis Committee and/or a Contested 'Steering Committee' for the World." *International Affairs* 86, 3: 741-757.
- Cox, Robert W. and Timothy Sinclair. 1996.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oley, Michael, David Folkerts-Landau, and Peter Garber. 2009. "Bretton Woods II Still Defin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acific Economic Review* 14, 3: 297-311.
- Drezner, Daniel W. 2007. "The New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86: 34-46.
- Eberlein, Burkard and Abraham L. Newman. 2008. "Escaping the International Governance Dilemma? Incorporated Transgovernmental Networks in the European Union." *Governance* 21, 1: 25-52.
- Economy, Elizabeth C. and Adam Segal. 2009. "The G-2 Mirage: Wh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Not Ready to Upgrade Ties." *Foreign Affairs* 88, 3: 14-23.



- Eilstrup-Sangiovanni, Mette. 2009. "Varieties of Cooperation: Government Networks in International Security." In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ed. Miles Kahl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rieden, Jeffrey A. 2006. *Global Capitalism: Its Fall and Ri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Germain, Randall. 2009. "Financial Order and World Politics: Crisis, Change and Continuity." *International Affairs* 85, 4: 669-687.
- Gill, Stephen. 1995. "Globalization, Market Civiliz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nium* 24, 3: 399-423.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re, Charles. 2003. "The Rise and Fall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s a Paradigm for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tate-Market Rela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 ed. C. Roe Goddard, Patrick Cronin, and Kishore. Boulder, CO: Lynne Rienner.
- G20 Summit.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Seoul, November 11-12, 2010; "The G20 Toronto Declaration." Toronto, June 26-27, 2010;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Pittsburgh, September 24-25, 2009; "The G20 London Summit - Leaders' Statement."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ystem," "Declaration on Delivering Resources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ondon, April 2, 2009; "Declaration of the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November 15, 2008.
- Halper, Stefan. 2010.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Harrison, Neil E. 2006. *Complexity in World Politics: Concepts and Methods of a New Paradig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elleiner, Eric. 2010. "A Bretton Woods Moment? The 2007-2008 Crisis and the Future of Global Finance." *International Affairs* 86, 3: 619-636.
- Ikenberry, G. John. 2001.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kenberry, G. John. 2009. "Liberal Internationalism 3.0: America and the Dilemmas of Liberal World Order." *Perspectives on Politics* 7, 1: 71-87.
- Joffe, Josef. 2009.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88, 5: 21-35.
- Kahler, Miles.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n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ed. Miles Kahl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letsky, Anatole. 2009. "America Still Rule the Post-Crisis World." *The Times* May 7.
- Kennedy, Scott. 2010.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 461-477.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72. "Trans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Politics* 27: 153-173.
- _____.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rtinez-Diaz, Leonardo and Ngaire Woods. 2009. *Networks of Influence? Developing Countries in a Networked Global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ttoo, Aaditya and Arvind Subramanian. 2009. "From Doha to the Next Bretton Woods: A New Multilateral Trade Agenda." *Foreign Affairs* 88, 1: 15-26.
- Nanto, Dick K. 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eign and Trade Policy Effects." *CRS Report for Congress R4049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Nesvetailova, Anastasia and Ronen Palan. 2010. "The End of Liberal Finance? The Changing Paradigm of Global Financial Governance." *Millennium* 38, 3: 797-825.
- O'Brien, Robert, Anne Marie Goetz, Jan Aart Scholte, and Marc Williams. 2000. *Contesting Global Governanc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d Global Social Movemen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o, Joshua Cooper. 2004. *The Beijing Consensus: Notes on the New Physics of Chinese Power*. London: Foreign Policy Center.
- Raustiala, Kal. 2002. "The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nsgovernmental Network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3, 1: 1-92.
- Ruggie, John.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397-415.
- Serra, Narcis and Joseph E. Stiglitz. 2008. *The Washington Consensus Reconsidered: Towards a New Global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ederberg, Susanne. 2004. *The Politics of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imposing Neoliberal Domination in the Global South*. London: Zed Books.
- Slaughter, Anne-Marie. 2004.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infeld, Edward S. 2010. *Playing Our Game: 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oseph.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W Norton.
- Subacchi, Paola. 2008. "New Power Centres and New Power Brokers: Are They Shaping a New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Affairs* 84, 3: 485-498.
- UN. 2009.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xpert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al General Assembly on Reform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New York: United Nations.
- Underhill, Geoffrey R. and Xiaoke Zhang. 2008. "Setting the Rules: Private Power, Political Underpinnings, and Legitimacy in Global Monetary and Financial Governance." *International Affairs* 84, 3: 535-554.



-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0. *Global Governance 2025: At a Critical Junctur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estergaard, Jakob. 2009. *Discipline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End of Liberalism*. London: Routledge.
- Wade, Robert. 2007. "A New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New Left Review* 46: 113-129.
- Williams, David. 2008. *The World Bank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Liberalism, Governance and Sovereignty*. London: Routledge.
- Williamson, John. 1990.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Latin American 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ed. John Williams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olf, Richard. 2009. "Obama G20 Unite on Recovery Package." *USA Today* April 3.
- Woods, Ngaire. 2010. "Global Govern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 New Multilateralism or the Last Gasp of the Great Powers?" *Global Policy* 1, 1: 51-63.
- Xinbo, Wu. 2010. "Understanding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33, 4: 155-163.
- Yao, Yang. 2010. "The End of the Beijing Consensus: Can China's Model of Authoritarian Growth Survive?" *Foreign Affairs*, February 2.
- Yong, Wang. 2008. "Domestic Demand and Continued Reform: China's Search for a New Model." *Global Asia* 3, 4: 24-28.



필자약력

세종연구소 지역연구실 연구위원. 김치욱 박사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가톨릭대 아태 지역연구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했다. 관심 분야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국제금융정치, 중견국가론, 동아시아 정치경제,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며, 최근 논저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형성과 미국의 네트워크 권력: 국제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0), "외국 금융자본 유치와 금융선진화의 성공조건" (《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 2010),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2009), "미국의 Gs 창출과 패권의 네트워크화 전략" (〈세종정책연구〉, 2009), "국제금융제도 개혁과 중견국가: G20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9),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2009)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원(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